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엡2:4)

⊗ 생활지침 ⊗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절반 건넌 홍해서 새 땅 향해

홍해작전 10일째

지난 6일에 시작한 '97홍해작전이 중반에 이르렀다. 20일간 새벽기도회로 갖는 홍해작전이 오늘로 10일째를 맞게 된 것이다.

서울교회 성도들이라면 해마다 6월에 가지는 특별새벽기도회인 홍해작전의 의미를 잘 안다. 또한 일년 내내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홍해작전 때만큼은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한다.

이종윤 목사는 12일(금) 새벽기도회에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성전을 향해 달려오는 이유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며 더욱 힘써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간구하자고 했다.

지난 10일간 인원 수에 큰 변동이 없이 예배실을 채우고 있는 성도들 중에는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면서 맛보는 기쁨에 대해 간증이

늘어나고 있다.

한 참석자는 “새벽잠 많은 우리 부부를 정확히 4시에 일어나도록 깨우시는 일부터 일상에서 상상하지 못한 크고 작은 은혜를 부어 주신다”며 “이 은혜를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가족부 교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홍해작전에 참가하여 개인의 기도뿐 아니라 새가족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한편 찬양대원들의 참여율이 여느 해보다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찬양대원이나 회중 모두 찬양 중에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25일(수) 승전의 날까지 열흘이 남았다. 지금까지 참여한 성도들은 더욱 힘을 내고 아직 참석 못했거나 중간에 쉬는 성도들은 다시 새로운 힘으로 함께 승전의 기쁨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새벽마다 홍해작전에 참가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는 성도들

‘가족초청만찬회’ 내일 개최

오후 6시 시작... 장소관계상 대상자만 참석

가족초청만찬회가 내일로 다가왔다. 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을 초청했고, 교회는 이들 260여 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은 초청장을 받은 이들이 모두 초청에 응할뿐 아니라 마음 문이 열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이번 만찬회가 교회 아닌 외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참가대상을 한정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성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초청한 사람과 초청받은 사람만 만찬회에 참석해 주기를 요청했다. 참석

자들은 당일 오후 6시 이전에 삼정호텔 2층에 마련된 안내석에 와서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쳐 명찰과 순서지 등을 받고 안내를 받아 지정된 좌석에 앉으면 된다. 준비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시작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당일 순서는 황수관 교수의 특강, 초청자 소개 및 만찬, 설교 등으로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9시에 마칠 예정이다.

또한 초청받은 사람의 모든 경비는 교회가 부담하지만 초청자(신청자)의 참가비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97 홍해작전 기도제목

- 1. **나라와 민족의 갱신과 회복을 위해**
정치와 경제, 사회질서, 북한 동포를 위해...
- 2. **서울교회 부흥을 위해**
12개 교회학교, 12개 교구와 다락방의 부흥을 위해...
- 3.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
부모, 부부, 자녀, 형제, 일가친척을 위해...
-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농어촌 110개 교회의 부흥과 선교사역지, 김치신학세미나를 위해...
- 5. **악한 문화 추방과 크리스찬 문화 형성을 위해**
퇴폐문화와 물질만능주의의 퇴치 및 기독교문화 창달을 위해...
- 6. **개인의 신앙부흥을 위해**
말씀·기도·찬송·전도에 대한 불길이 타오르도록...
- 7.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성전건축허가와 민원의 해결, 기공예배와 건축일정을 위해...

✧ 순례자 컬럼 ✧

거짓말

슬프게도 현대인들은 거짓말을 생활의 편리한 도구로 습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번만 잘하게 되면 일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습적으로 거리낌없이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있다.

사업가는 사업상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정치가는 국가안보와 자파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하며 사회의 공기(“”)라고 자처하는 언론인들도 종종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대국적 견지에서 국민의 여론을 조성키 위함이라고 한다. 교육자도, 심지어는 종교인까지도 거짓말을 다반사로 하는 사회가 되었다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회에 난무하는 중상, 모략, 허위사실 유포는 혀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이다. 위증과 아첨하는 말, 험담과 거짓된 말은 지옥에 가는 죄목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행한 죄값으로 요셉이 자기들에게 악을 갚지나 않을까 걱정이 된 것입니다(15절).

1. 두려워하는 형제들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죽기 전에 한 말을 요셉에게 전했습니다(17절). 그리고 요셉 앞에서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은 이제 요셉의 꿈대로 요셉 앞에 엎드려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하고 있었습니다(19절).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20절)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어떤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에 나온 인물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역사를 바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극히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자기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가정을 잘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원수의 자녀들까지도 사랑하는 요셉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2. 그러나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엡2:3 - 5, 고전2:8, 10, 롬5:7 - 8, 고전10:13, 고전1:27, 행13:29 - 30, 은1:4, 창50:20).

요셉은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할 이들로부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세 가지 다음의 사건을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1)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순진하게,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혜롭지 못하게 자기의 꿈들을 솔직하게 형들에게 말함으로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시어 애굽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셔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2)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짓밟혔습니다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 보디발의 집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신실하게 일함으로 주인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매력적인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의 손을 뻗쳤고 결국 요셉은 그 여인의 음모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시고 오히려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종윤 목사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 50:15 - 21)

(3)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굶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의 무죄를 바로에게 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게 되자 술 맡은 관원장은 비로소 요셉을 기억하며 그를 바로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사람은 잊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3.요셉의 신앙고백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

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은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여기서 ‘선’은 구원을 말합니다. 요셉은 이것을 분명히 안 사람입니다. 그는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또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란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죄까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4.가장 큰 악과 가장 큰 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가장 선한 것이 된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비통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악을 통하여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요셉이 팔려 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30에 팔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간 것처럼 예수님은 종의 종이 되시어서 이 세상에 인간을 섬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형들과 온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요셉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인들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며



높은 곳에 올라가 위를 바라다보면

최형렬 집사(고동부 교사, 찬양대원)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라”는 옛 사람들의 충언이 있다. 산꼭대기에 오르면 그 산의 전체 모양과 여러 갈래의 길과 내려가야 할 목표지점을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후좌우가 다 막혔을 때 그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사방을 둘러보아도 열린 길이란 없어 보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위엿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다.

내 자신의 문제, 가정, 교회, 사회와 국가의 문제만을 바라볼 땐 그대로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만치 무력감만 들었다.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홍해작전이 시작됐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 참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잡은 자들과의 싸움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 뜨리려는 세력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아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투임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그간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손은 만유보다 크시기에 우리에게 닥친 영적 싸움이 아무리 맹렬하여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최후 승리는 보장된 것이라는 진리가 날마다 내게 새 힘을 준다.

여러 성도와 함께 걸으며 서로의 열심에 피곤을 잊게 되고, 같이 행진하는 성도들과 기도제목을 나눌 때는 그 든든함이 더욱 커져만 간다.

더욱이 찬양대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고백을 찬양으로 드릴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을 맛보곤 한다.

개인기도 시간엔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을 갖는 설레임과 감격을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다. 고민과 번민이 감격과 기쁨으로 바뀌고 날마다 승리의 확신이 더해 가며 어느새 눈가엔 감사의 눈물이 맺혀온 한다.

산꼭대기에 올라 산 아래 모든 것을 내려다 보듯 모든 일을 접어두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니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문제가 참으로 작게 보인다.

전후좌우를 둘러봐도 답답하기만 하였으나 홍해작전에 참가하여 눈을 들어 위를 올려다보니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답답하던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새벽을 시작하면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빛이 새롭고 감사하기만 하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더욱 충성하며 살리라는 각오로 가슴이 벅차 오르고 하루 하루의 의미가 새롭기만 하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시57:8, 9).

주의 호령 났으나...

김세재 집사(대학부 교사, 찬양대원)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 되면 어린애들로부터 연로하신 분들까지 모여 들며 입구에서 환영하는 참모진들과 승리의 인사를 나눈다. 모두의 얼굴에서는 한결같이 선한 싸움 다 싸워 주의 일을 부흥케 하자고 다짐하는 비장함을 엿볼 수 있다.

찬양대석을 가득 메운 찬양대원들의 찬양이 힘차게 울려 퍼지고 예배실은 일곱가지 기도제목을 놓고 간구하는 성도들은 소리로 뜨거워진다. 첫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이미 승전을 확신하고 나머지 행진도 힘차게 하고 있다.

홍해작전의 절반을 진군하는 동안 발견한 것은 마치 해답지를 가진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풀듯 다 이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대장 예수께서 사악한 적의 도전에 우리가 실족치 않도록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의 작전을 치밀하게 계속 내려주신다는 것이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기다리며 그의 음성을 들으라. 순종하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신을

벗으라. 교만하면 패하고 만다. 한 개인의 죄악으로 공동체가 멸망할 수도 있다. 단을 바로 쌓으라.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

매일의 지시를 받고 기도회를 마친 후 가족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새벽은 마치 비기를 전수받은 승리의 장수가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것같은 기분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매일 찬양대에 서면서 평소와는 달리 6개 찬양대 지휘자들의 지도를 골고루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영광스럽다. 찬양의 순간마다 주님의 승리가 끝나의 승리임을 확신케 되는 귀한 체험을 간직하고 싶다.

“혹시 아직도 홍해작전에 참가하지 못한 신자들이 계시다면 내일 새벽 5시엔 꼭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군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갑시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더욱 부흥케 하옵소서!”

‘홍해’ 라니?

이동만 (새가족)

서울교회 등록한 지 어언 두 달.

서울교회 교인으로서 적응하면서 봉사하려고 나설 때마다 킴치신학세미나나 목회자세미나나 모두 생소하기만 했고 참으로 할 일 많은 교회라는 것을 느꼈으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모두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차체에, ‘홍해작전’이라니... 처음 접해보는 단어에 도대체 어떻게 또 그 대열에 합류해야 할 것인지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그런데 기도하며 모든 것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또다시 놀라며, 나 역시 뒤질 수 없다는 생각에 힘써 참여하리라곤 굳게 다짐했다.

6월 6일 첫 새벽기도회. 비장한 각오로 스스로에게 임무를 부과한 뒤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여 하리라곤 마음 먹었다. 그 전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잠을 잘 잘 수 없었으나 그래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성전으로 향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은혜 부어 주시니 부족한 나도 믿음으로 남은 홍해를 다 건널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이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일을 부흥케 하는 일에 끝까지 순종하려 한다.

어린이 전도체험기

“예수님 믿으세요” “뭘 예수?” 무척 당황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내용을 인쇄해 넣은 전도지와 전도용으로 제작한 휴지를 들고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조를 짜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 어른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애, 우리도 휴지 가져왔어. 예수는 무슨 예수니?”라고 하시며 계속해서 매우 불쾌하게 큰 소리로 꾸중하듯 말씀하셨다.

아무리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찌 그리 험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여러분 주위의 이런 어른들께 예수님, 구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여지

자 짐을 내려 놓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게 하신 것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보며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 인간이 만든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전도에 나섰다. 모두들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다. 우리 조가 다가간 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무 것도 믿지 않는다는 사람, 또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이 있었다. 믿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건네 주는 전도지와 휴지에 적힌 말씀을 받아들고 읽었다. 그런데 불교신자라는 가족은 우리들을 아예 가까이 다가오지도 말라고 했다.

우리에게 아주 불쾌한 시선을 보내는 데는 우리도 기본이 몹시 상했다.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최화미

역에서 전철을 타고 대공원까지 갔다. 대공원까지 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모처럼 야외에서 먹는 점심 도시락은 꿀맛이었다. 우선 자연을 바라볼 수 있어서 답답하지가 않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나누어 먹으니 정말 즐겁기도 했다.

모두들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다. 그리고 다시 모여 전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 했다. 친구들의 말이 재미있어서 웃기도 했지만 참으로 당황스러웠던 일들도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모두 더욱 전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 같았고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여겨졌다.

다시 왔던대로 지하철을 타고 교회부근에서 각자 집으로 헤어졌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 나는 발걸음이 참 가벼웠다.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강신혜

대공원은 휴일이라서 그런지 무척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 전도요령과 전도할 때의 태도 등에 대해 공부하고 강남

- * 이종윤목사는 한국기독교학술원 제 16회 정기공개세미나에서 “해설성경의 문제점과 목회자의 제언”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한다. 6월 20일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 기념관 4층회의실에서 열리는 이 세미나는 대한성서공회가 후원한다. 또한 오는 19일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82차 총회 주제연구위원회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 해설을 한다.

- * 이순덕집사(3교구 일원다락방)는 10일 삼성동에 음식점 ‘진미정’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 이정근집사(8교구 쌍문다락방)는 13일 장위동에 ‘Gorean Life Company’를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 이번 주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김용숙 집사 가정에서 제공한다.

대학부 특강

대학부(부장 정병무 장로)가 주최하는 특강이 오늘 2시부터 4층 대학부집회실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류태영 장로(건국대 교수)로 강의 제목은 “젊은 신앙인들을 위한 비전”이다.

대학부 회원과 젊은이들뿐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다.

* 김문영성도(고윤화 권사 딸)가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 우리 교회에서 찬양의 순서를 갖는다. 서울 음대를 거쳐 만하탄 음대에서 성악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 성도는 '97국제예술인상(Artist International '97) 성악부분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아스펜(Aspen)음악제에서 오페라주연을 맡기도 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흥해작전에 참가하여 승전할 수 있도록
2. 가족초청만찬회에 초대된 믿지않는 가족들을 위해
3.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신사역, 영동시장, 캠퍼스극장, 노원교회, 개업은행, 논현동지침, 강남역, 노보텔 삼성호텔, 제1생명, 서울교회, 상업은행, 보람은행, 터미널